■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81-209.
http://doi.org/10.17948/kcs.2019..82.181

# 『훈민정음』 해례의 ‘喉(후)’ 의미 재고*

신지영(辛志英)**

목 차

1. 서론: ‘후’의 의미를 재고해야만 하는 이유
2. 『훈민정음』 해례의 자음 관련 기술
3. ‘후(喉)’가 의미하는 바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의 ‘후(喉)’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해례의 자음에 대한 인식 전반을 살피고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가 지니는 음성학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후’는 선행연구의 견해와는 달리 ‘후두’ 혹은 ‘성문’이 아니라 ‘목구멍’, 즉 ‘구강과 인강에 의해 만들어지는 ㄱ자 관의 구강 쪽 끝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첫째, 연구개음의 기술에 쓰인 ‘舌根閉喉(설근폐후)’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둘째, ‘ㆁ’과 ‘ㅇ’의 음성적 유사성을 설명할 수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게 한다. 셋째, 순경음과 반설경음 표시에 쓰인 ‘ㅇ’의 연서 이유와 이에 대한 기술에서 보인 ‘喉聲多(후성이 많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ㅇ’을 ‘淡而虛’라고 기술한 것과 ‘ㅇ’과 ‘ㆆ’이 초성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하다고 기술한 의미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주제어: 훈민정음 해례, 후(喉), 아설순치후, 설근폐후(舌根閉喉), 후성다(喉聲多).

## 1. 서론: ‘후’의 의미를 재고해야만 하는 이유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훈민정음』해례의 ‘후(喉)’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논증하기 위해서는『훈민정음』해례의 자음에 대한 인식 전반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선『훈민정음』해례 내 자음자의 배열 순서를 살핌으로써 편찬자들이 보이는 기술의 체계성을 알아볼 것이며, 이어서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가 지니는 음성학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증해 갈 것이다.

사실, 훈민정음 관련 연구에서 ‘후(喉)’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후’는 ‘목구멍’이라고 풀고 대체로 ‘후두’ 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1] ‘후음’은 ‘후두음(성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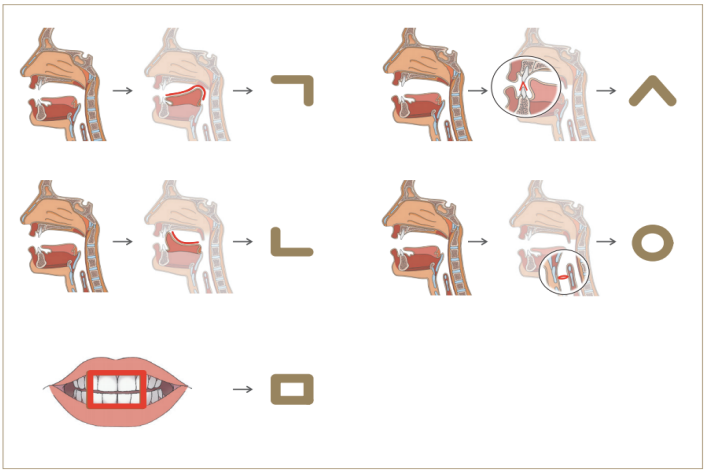
이는 국립한글박물관[2]의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부분에서 자음의 기본자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잘 드러난다.『훈민정음 표준 해설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그림 1]과 같은 그림을 제공하면서 ‘후음’의 상형 대상을 해설하고 있다.[3]

---

1) 「표준국어사전」에서 ‘후음’을 찾으면 ‘목구멍소리’와 같은 말로 풀이되어 있다. ‘목구멍소리’는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로 풀이되어 있다.

2) 국립한글박물관,『훈민정음 표준 해설서』, 국립한글박물관, 2017, 10면.

3) 이 책은 일러두기를 통해 해당 해설서의 내용이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림 1] 자음 기본 글자를 만든 원리 개념도[4)]

하지만 '후'를 '후두'로 해석한다면 '아음(牙音)'인 'ㄱ'[5)]과 'ㆁ'에 대해 『훈민정음』 해례가 기술하고 있는 '舌根閉喉(설근폐후)' 즉, '혀뿌리가 '후(喉)'를 막는다'는 기술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아음을 설명하면서 '혀뿌리가 후두를 막는다'고 기술하는 것은 조음 음성학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후'를 '후두'로 본다면, '후음'에 속하는 '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말끔하지 않다. 강신항[6)]은 'ㅇ'의 음가를 [zero, 또는 ɦ]로 보았다. 하지만 왜 그렇게 재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 둘을 'ㅇ'의 변이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ㅇ'이 음운이 없는 경우와 자음인 /ɦ/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자라고 보고 있는지를

있고, 학자 사이의 이견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초안의 작성 후 국립국어원, 훈민정음학회, 한글학회,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관련 여러 전문 기관과 단체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그림 1]은 학계에서 이견 없이 널리 수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4) 국립한글박물관, 앞의 책, 10면.

5)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글 자모 표기에 대해 모두 해당 글자의 자모명으로 읽고 조사를 붙일 것이다. 이때, 현재의 자모명이 있는 문자는 현재대로 읽고, 현재의 자모명이 없는 'ㆁ, ㅿ, ㆆ'은 관례에 따라 각각 '옛이응, 반치음, 여린히읗'으로 읽는다.

6)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2003, 165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떠한 입장을 갖는다고 해도 음운론적으로는 많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7]

만약 'ㅇ'이 두 가지 변이음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음가가 없는 [zero]로 나타나고 어떤 환경에서 음가가 있는 [ɦ]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한 음운이 '[zero]와 [ɦ]'의 두 변이음을 갖는다는 주장은, 한 음운이 음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변이음을 갖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또, 만약 'ㅇ'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 즉 음운이 없는 경우와 /ɦ/라는 음운을 나타내는 경우의 두 가지를 표시하는 기호였다고 보려고 한다면, /ɦ/라는 음운이 당시 음운 체계 내에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운[8]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ɦ/가 음운 목록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ɦ/가 음운 목록에 존재한다면 여타의 장애음들은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데 성문 마찰음이 유무성의 대립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9]

---

7) 강신항은 이기문에 근거하여 재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문은 '살오'나 '몰애' 등의 표기를 근거로 이 경우의 'ㅇ'이 음가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기문의 주장은 'ㅇ'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음운론적인 이유를 공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혹은 음성학적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문의 이어지는 논의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ㅇ'이 음가 없는 경우(즉 [zero])와 [ɦ]의 음가를 갖는 경우의 두 가지를 나타내는 문자로 보아야 하는 이유, 혹은 'ㅇ'을 /ɦ/의 음가를 갖는 음운으로 인정하는 것 모두 공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 글자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음성이라는 주장을 위해서는 15세기 공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의 상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근거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신항, 앞의 책; 이기문,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1972;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8) 서로 다른 음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히 표현하면 음운이 없는 경우와 음운 /ɦ/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 물론, 'ㅿ'을 음운으로 인정하고 /z/로 재구한다면 치경 마찰음이 유무성의 대립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문 마찰음이 음운론적으로 유무성의 대립을 갖는 언어는 지금까지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폐쇄음에서는 유무성의 대립이 없는데 마찰음에서만 유무성의 대립을 갖는 언어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ɦ/를 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Maddieson에 따르면 폐쇄음은 유무성의 대립이 없는데 마찰음만 유무성의 대립을 보이는 언어는 조사 대상 언어 567개 언어 중에 38개 언어 즉 6.7%에 불과하다. Ian Maddieson, 「Voicing in Plosives and Fricatives」,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한편, 이현희 외[10]는 'ㅇ'을 후두 유성 마찰음(/ɦ/)으로 보면서 '자음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음절이 /ɦ/로 시작된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15세기 한국어의 모든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매우 획기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획기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음성학적, 음운론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그동안 '후'에 대한 논의는, 후음에 속한 후두음들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후'를 '후두'라고 생각해 버리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를 '후두'로 생각했기 때문에 급기야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이 조음 음성학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고,[11] 'ㅇ'이 후음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후두음 중 하나로 재구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ɦ/로 재구되기도 하였다.

만약에 '후'가 의미하는 바가 '후두'가 아니라고 한다면,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고, 'ㅇ'이 반드시 후두음의 하나로 재구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을 음성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석하고, 이해한 후에 '후'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자음 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훈민정음』 해례에서 '후'의 문제는 자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1에서는 『훈민정음』 해례에 제시되어 있는 자음(자)의 제시 순서를 검토하였고, 2.2에서는 『훈민정음』 해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의 음성학적인 의미와 그 배열 순서가 지니는

---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4(2018.12.24 검색).

10) 이현희 외, 『훈민정음의 한 이해』, 역락, 2014, 345면.

11) 임용기, 「이른바 이체자 'ㆁ, ㄹ, ㅿ'의 제자방법에 대한 반성」, 『새국어생활』 제9권 4호, 국립국어원, 1999, 161-167면.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 ‘후’와 관련된『훈민정음』해례의 기술을 정리해 보았고(3.1), 이를 바탕으로 ‘ㆆ’과 ‘ㅇ’의 음성적 유사성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후’의 실체가 무엇인지(3.2), 또, 순경음과 반설경음의 표시에서 ‘ㅇ’을 이어서 쓴 이유와 이 과정에서 ‘喉聲多(후성다)’라고 기술한 뜻, 그리고 ‘ㅇ’에 대해 ‘淡而虛(담이허)’라고 한 의미를 ‘ㅇ’를 ‘ㆆ’의 음성적 유사성에 대해 기술한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3.3).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 2.『훈민정음』해례의 자음 관련 기술

‘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훈민정음』해례가 세우고 있는 자음 전반에 대한 이해의 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후’의 문제는 자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음 전반에 대한 이해의 체계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2.1에서는『훈민정음』해례의 자음자 제시 순서를 검토하였다. 제시 순서가 기술하고자 하는 바와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훈민정음』해례가 보이는 자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기술 수준을 가늠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2.2에서는『훈민정음』해례에서 조음 범주로 설정하고 있는 ‘아, 설, 순, 치, 후’가 현대 음성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 1)『훈민정음』해례의 자음자 제시 순서와 그 의미

『훈민정음』내 자음자 제시 순서는 예의 편과 해례 편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례 편 내에서도 기술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자음자의 제시 순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훈민정음』해례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 자음자의 제시 순서를 모두 정리하여 제시하면 ①에 보인 것과 같다.

① 『훈민정음』 해례의 자음자 제시 순서

ㄱ. 예의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ㆆ ㅎ ㅇ ㄹ ㅿ

i) 조음 범주순: 아 → 설 → 순 → 치 → 후 → 반설 → 반치

ii) 동일 조음 범주 내 청탁순[12]: 全淸 → 次淸 → 不淸不濁

ㄴ. 제자해 첫 부분 자음자의 제시 순서

ㄱ ㄴ ㅁ ㅅ ㅇ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 ㆁ ㄹ ㅿ

i) 제자 범주 순: 기본자 → 파생자

ii) 동일 제자 범주 내 조음 범주순: 아 → 설 → 순 → 치 → 후 → 반설 → 반치

iii) 동일 가획 범주 내 조음 범주순

vi) 동일 조음 범주 내 가획의 수

ㄷ. 제자해의 '청탁(淸濁)'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의 자음자 제시 순서

ㄱ ㄷ ㅂ ㅈ ㅅ ㆆ ㅋ ㅌ ㅍ ㅊ ㅎ ㄲ ㄸ ㅃ ㅉ ㅆ ㆅ ㆁ ㄴ ㅁ ㅇ ㄹ ㅿ

i) 청탁 범주순: 全淸 → 次淸 → 全濁 → 不淸不濁

ii) 동일 청탁 범주 내 조음 범주순: 아 → 설 → 순 → 치 → 후 → 반설 → 반치

ㄹ. 초성해의 자음자 제시 순서

ㄱ ㅋ ㄲ ㆁ

i) 아음에 속한 자음자를 대표로 제시

ii) 동일 조음 범주 내 청탁순: 全淸 → 次淸 → 全濁 → 不淸不濁

ㅁ. 종성해

▸종성의 사용례: ㄱ ㆁ

i) 아음에 속한 자음자만 제시

ii) 동일 조음 범주 내 청탁순: 全淸 → 不淸不濁

▸종성의 범주에 따른 완급 설명: ㆁ ㄴ ㅁ ㅇ ㄹ ㅿ

i) 불청불탁만 조음 범주순: 아 → 설 → 순 → 후→ 반설 → 반치

▸8종성에 대한 설명: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i) 조음 범주순 : 아 → 설 → 순 → 치 → 반설

ii) 동일 조음 범주 내 청탁순: 全淸 → 不淸不濁

ㅂ. 용자례의 초성과 종성의 자음자 제시 순서

▸초성: ㄱㅋㆁㄷㅌㄴㅂㅍㅁㅸㅈㅊㅅㆆㅇㄹㅿ

i) 조음 범주순: 아 → 설 → 순 → 치 → 후 → 반설 → 반치

12) 'ㅈ, ㅊ, ㅅ'의 순서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상술함.

ii) 동일 조음 범주 내 청탁순: 全淸 → 次淸 → 不淸不濁
▸종성: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i) 조음 범주순: 아 → 설 → 순 → 치 → 반설
ii) 동일 조음 범주 내 청탁 순: 全淸 → 不淸不濁

①ㄱ은 새로 만든 글자의 모양을 소개하고 그 소리의 음가를, 한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예의 편의 자음자 제시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자음자의 제시 순서는 조음 범주(아, 설, 순, 치, 후)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 청탁(전청, 차청, 불청불탁)을 다음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①ㄴ과 ①ㄷ은 모두 제자해 내의 내용이다. 하지만 자음자의 배열 순서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ㄴ은 제자해의 첫 부분으로 자소(字素)가 만들어진 원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음자의 제시 순서는 소리 범주가 아니라 제자 범주를 따르고 있다. 제자의 시작이 되는 기본자들을 먼저 보인 후에 이로부터 파생된 글자들을, 그 유형에 따라 하위 범주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단, 동일한 제자 범주 내의 글자들 중에는 조음 범주의 순서인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를 따랐고, 조음 범주가 같은 경우에는 가획의 범주와 가획의 수에 따라서 배치하였다.[13] 한편, 같은 제자해 부분이지만 청탁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에는 ①ㄷ에 보인 것과 같이 청탁 범주가 조음 범주에 앞서는 첫 번째 분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자해에 이어지는 초성해(①ㄹ), 종성해(①ㅁ), 용자례(①ㅂ)는 기본적으로 모두 조음 범주를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하되, 동일 조음 범주 내에 2개 이상의 자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탁의 순서를 지키는 원칙으로 자음자가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3) 기본자를 파생시키는 방법이 '가획'이라고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이는 임용기와 같은 입장이다. 임용기, 앞의 글. 『훈민정음』 해례의 가획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를 위해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획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획의 의미가 있는 범주와 없는 범주가 그것이다. 가획의 의미가 있는 범주는 없는 범주(無加畫之義)에 앞선다. 그리고 가획의 의미가 있는 범주는 가획의 의미가 모두 같은 유형(其因聲加畫之義皆同), 즉 가획의 의미가 일반적인 유형과 이들과 다른 유형(唯ㆁ爲異)으로 세분류된다. 그리고 가획의 의미가 일반적인 유형이, 이들과 다른 유형에 앞선다. 또, 가획의 의미가 일반적인 유형 내에서는 가획의 수에 따라서 가획의 수가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앞선다.

자음자의 제시 순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아음의 불청불탁인 'ㆁ'이다. 'ㆁ'은 소리로는 아음의 범주에 속하지만, 문자로는 후음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음성학적으로는 아음에 속하지만 자형학적으로는 후음에 속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ㆁ'은 『훈민정음』 해례에서 음성학적 설명의 대상이 되는가, 자형학적 설명의 대상이 되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음성학적인 기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음 범주에 속하므로 ①ㄱ, ①ㄷ, ①ㄹ, ①ㅁ, ①ㄹ, ①ㅁ, ①ㅂ과 같이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자형학적인 기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후음의 범주에 속하고 기본자가 아니라 가획자이므로 ①ㄴ과 같이 뒤쪽에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자음자 제시 순서를 통해 『훈민정음』 해례가 지니는 기술의 체계성과 정연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의 배열 순서가 갖는 음성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 2)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와 의미

'아, 설, 순, 치, 후'는 중국 성운학의 전통에 따른 조음 범주를 의미한다. 성운학의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가 현대 음성학적 의미로는 조음 위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14] 하지만 이는 올바른 이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운학의 전통에서 '설'과 '치'는 늘 별도의 조음 범주로 나뉘어 분류되는데, 현대 음성학적 관점에서 '설'과 '치'는 모두 치경음으로서 조음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설음과 치음이 별도의 범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성운학의 조음 범주가 현대 음성학적 관점에서 조음 위치를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15]

---

14) 강신항, 앞의 책; 임용기, 앞의 글.

15) 물론, 연구자들이 '설'과 '치'가 동일한 조음 위치인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아, 설, 순, 후'는 조음 위치를 의미하고, '설'과 '치'는 동일한 조음 위치를 갖지만, 조음 방법상 차이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신항, 앞의 책.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성운학의 전통에서 논의된 조음 범주의 분류 기준이 매우 비체계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사실 '아, 설, 순, 치, 후'의 조음 범주 구분은 현대 음성학과는 다른 분류 기준을

한편, 박창원[16]은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창원[17]은 '아, 설, 순, 치, 후'가 조음 방식(방법)과 조음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전체적인 순서에서 폐쇄음의 순서를 폐쇄음이 아닌 것의 앞에 두고(아설순 : 치후), 폐쇄음끼리의 순서에 있어서는 폐쇄의 위치가 허파에 가까운 것을 앞서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폐쇄성이 바로 초성이 중성과 구분되는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후음'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 '후음'에 속한 세 개의 소리 중에서 'ㆆ'은 폐쇄음이고 'ㅎ'은 마찰음이기 때문이다.

성운학의 전통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음 범주의 명칭과 순서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조음 범주에 속한 소리들이 갖는 음성학적인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아, 설, 순, 치, 후'의 5가지 조음 범주 중에서 '아, 설, 순'은 공통적으로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는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다막음 소리'에 해당되는 소리들이다. 폐쇄음과 비음이 이 범주에 함께 속하게 된 이유다.

성운학에 기반을 둔『훈민정음』해례는 폐쇄음과 비음이 동일 조음 범주 내에서 청탁에 의해 구분되는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폐쇄음은 청탁에 따라서 전청, 차청, 전탁으로 세분되고, 비음들은 불청불탁[18]의 범주에 속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다막음 소리들은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들끼리 묶여서 입술에서 먼 것부터 '아, 설, 순'과 같이 나열하는 체계이다.

이와는 달리 '치'와 '후'는 모두 소리가 산출되는 내내 구강의 완전 폐쇄가

---

가지고 있을 뿐, 나름대로의 원칙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16) 박창원,『훈민정음』, 신구문화사, 2005, 239-240면.

17) 같은 책.

18) '불청불탁'이 현대 음성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불청불탁음을 공명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본다면 반치음이 불청불탁음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불청불탁'을 청탁의 구분에 의해 소리가 변별되지 않는 소리들, 즉 범주 내에 청탁의 변별이 없는 소리들로 보고자 한다. 공명음이 이 범주에 주로 속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불청불탁'과 함께 반설, 반치의 '반'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반치음과 전탁음 'ㅆ'의 음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지속되지 않는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가운데 'ㅊ'는 조음 기관인 윗니가 장애물로서 조음에 관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치경부에서 산출되는 파찰음과 마찰음을 포함한다. 'ㅊ'는 소리가 산출되는 동안 구강의 완전 폐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마찰음) 잠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산출 내내 지속되지 않는 소리들(파찰음)이다.

한편, 'ㅎ'는 구강 통로에서의 방해가 전혀 없이 산출되는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후음'의 범주에 속한 'ㅇ, ㆆ, ㅎ'은 모두 공통적으로 구강 통로에서 폐쇄나 마찰 등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산출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성문 마찰음이나 성문 폐쇄음의 경우는 성문에서 마찰 혹은 폐쇄가 만들어지는 만큼, 구강 내의 마찰이나 폐쇄는 없는 소리들이다.

초성에 자음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ㅇ'의 경우는 물론, 성문 폐쇄음을 의미하는 'ㆆ'과 성문 마찰음을 의미하는 'ㅎ'은 모두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서 성도의 형상(vocal tract configuration), 즉 구강 통로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후행하는 모음이 같다면 후음에 속한 소리들은 모두 동일한 구강 통로의 모양을 갖게 된다.

후음에 속한 세 소리는 후행하는 모음이 동일한 경우 구강 통로는 동일한 형상을 갖지만 성대에서만 차이를 갖게 된다. 즉, 'ㅇ'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성대를 진동하고, 'ㆆ'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성문을 막았다가 떼고, 'ㅎ'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성문을 좁혀서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후음에 속한 소리들은 모두 후행하는 모음과 동일한 모양으로 구강의 통로가 열린 채 조음되는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음 범주의 순서에 있어서 다막음 소리가 덜 막음 소리에 앞서고 덜 막음 소리도 구강을 막는 정도에 따라서 더 막는 소리가 덜 막는 소리에 앞서는 배열을 갖는다고 음성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면 치음에 속한 'ㅈ'과 'ㅅ'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훈민정음』 해례에는 소리의 순서로 글자를 나열하는 경우에 반드시 'ㅈ'이 'ㅅ'에 앞서는 순서를 보인다. 즉, 파찰음이 마찰음에 선행한다. 이는 동일 조음 범주 내에서 구강 폐쇄의 정도가 더 큰 것이 앞선다는 원칙에 따르

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구강의 폐쇄가 조음의 전반부에 동반되는 파찰음이 구강 폐쇄가 전혀 없는 마찰음에 앞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의 배열 순서는 조음 방법의 범주에 따른 것으로, 구강 폐쇄의 정도가 큰 것을 앞에 구강 폐쇄의 정도가 작은 것을 뒤에 놓는 원칙에 의해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아, 설, 순'은 모두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는 조음 범주로, 그렇지 않은 '치'와 '후'에 앞선다. '아, 설, 순'의 순서는 조음 위치가 입술에서 먼 쪽을 앞에, 입술에서 가까운 쪽을 뒤에 두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치'와 '후'는 공통적으로 구강의 완전 폐쇄가 소리의 산출 동안 지속되지 않는 소리들로, '치'는 이(치아)를 장애물로 하는 마찰 소음이 동반된다는 공통점을, '후'는 구강 통로에서의 방해 없이 산출되는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후'의 문제를 풀어 보자.

## 3. '후(喉)'가 의미하는 바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후'를 '후두'로 해석하고, '후음'을 '후두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과연 '후'가 '후두'를 의미하는 것일까?

서론에서도 논의했던 바와 같이 '후'가 '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다음에 보인『훈민정음』해례의 기술은 음성학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된다.

② ㄱ.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19][20]
(아음 'ㄱ'는 혀뿌리가 '후'를 막는 모양을 본떴다.)
ㄴ.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21]
(오직 아음의 'ㆁ'은 비록 혀뿌리가 '후'를 막고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19)『정음해례』제자해, 1ㄴ.
20)『훈민정음』해례본 원문 자료는 김슬옹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활용하였고, 한문의 번역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 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슬옹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1)『정음해례』제자해, 3ㄴ.

②ㄱ은 아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해당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ㄱ'과 같은 모양을 가진 이유에 대해 '혀뿌리가 '후'를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②ㄴ은 'ㆁ'이 아음임에도 불구하고 '후'의 모양을 본뜬 이유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훈민정음』 해례는 'ㆁ'이 아음에 속하는 소리로 '혀뿌리가 '후'를 막'는 소리라고 'ㄱ'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기술에서 'ㆁ'은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므로 'ㄱ'과 차이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설근폐후'(舌根閉喉)'의 '후'를 '후두'로 보게 되면, ②ㄱ, ②ㄴ은 모두 음성학적으로 아주 부적절한 기술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일단, 혀뿌리는 절대로 '후두'를 막을 수 없으며, 더욱이 'ㆁ'의 경우는 비음이기 때문에 후두를 막는다면 비강으로 기류가 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해례가 글자 'ㆁ'이 의미하고 있는 소리의 조음적 특징을 기술하면서 '혀뿌리가 '후'를 막'는다고 기술한 점과,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온다고 기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후'가 절대로 '후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훈민정음』 해례의 번역본을 잘 살펴보면 '후'의 풀이를 직접 '후두'라고 번역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후'를 그냥 '목구멍'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22] 하지만 문제는 '후'를 '목구멍'이라고 번역하면서 '후두'로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23]

---

22) 이현희 외, 앞의 책은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기존의 8개 번역본을 비교하고 새로운 번역안을 제안한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기존의 번역본 모두에서 '후'는 '목구멍(목구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새로 제안한 번역안 또한 '후'는 대부분의 경우 '목구멍'으로 풀이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2017에서도 '후'는 대체로 '목구멍'으로 풀이되어 있다. 같은 책의 한 부분에서 '후'가 그냥 '목'으로 풀이된 경우가 있는데,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정음해례』 제자해, 1ㄴ)을 해석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 부분이 책에는 '어금닛소리글자 ㄱ는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로 해석되어 있다. 같은 책, 32면. 하지만 거의 동일한 문구가 나오는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정음해례』 제자해, 3ㄴ)는 '오직 어금닛소리의 ㆁ(옛이응)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으로 해석되어 있어서 '후'를 '목'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책의 대부분에서 '후'는 '목구멍'으로 풀이되어 있고, 이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은 항상 'throat'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서 앞부분 해석의 '목'은 '목구멍'의 오자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는 '목구멍'의 실체를 도식화하는 경우에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대체로 '후두' 근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박창원은『훈민정음』해례의 후음의 부류가 현대 언어학에서도 후음이라고 하면서,[24] 후음이 목구멍의 모양을 본뜨고 있다고 설명한다.[25] 그리고 목구멍은 입을 크게 벌렸을 때의 모양으로 목구멍의 일반적인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ㆆ'과 'ㅎ'의 설명에서는 이들이 목구멍이 닫히고 열리는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ㆆ의 제자에 대해 '목구멍이 닫혀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모양 'ㅇ' 위에 'ㅡ'을 얹어 제자한 것'으로 설명하고, ㅎ은 '닫혔던 목구멍이 열려 다시 공기가 위쪽으로 흘러 나오는 모양을 'ㆆ' 위에 'ㅣ'를 더하여 'ㅎ'을 제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26] 후음들은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 성문 위쪽에서는 개폐를 논할 수 없는 소리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후'를 목구멍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목구멍의 개폐를 통해 후두음들을 설명하는 것은 목구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첫째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처럼 '후'를 '목구멍'이라고 번역하고 '목구멍'을 '후두'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훈민정음』해례의 연구개음에 대한 기술은 조음음성학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된다. 둘째는 '舌根閉喉' 혹은 '舌根閉喉聲氣

23) 강신항, 앞의 책, 124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훈민정음』번역서 혹은 연구서들은 '후음'을 '후두음' 혹은 '성문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 김슬옹, 앞의 책에 제공되어 있는 영어 번역에 '후음'은 'glottal sound'가 아니라 'guttural sound'로 되어 있다. 어원적으로 'throat(목구멍)'를 의미하는 'guttural'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guttural'은 엄격하게 정의된 음성학 용어가 아니다. 영어 화자들에게 'guttural sound'는 영어에는 없는, 독일어나 불어, 아랍어 쪽에 주로 있는 연구개 뒤쪽에서 나는 소리들을 의미하는데, 주로 연구개 마찰음과 다양한 조음 방법의 구개수음, 그리고 인두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에 존재하는 연구개 폐쇄음과 비음, 그리고 성문 마찰음과 성문 폐쇄음의 경우는 'guttural sound'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박창원, 앞의 책, 205면.

25) 같은 책, 213면.

26) 같은 책, 213면.

出鼻'를 조음 음성학적으로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후'를 '목구멍'으로 번역하되, 후음들을 '목구멍'과 연관시키지 않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구멍'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훈민정음』 해례의 관련 기술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후음'들이 가진 음성적인 공통점, 즉 모두 구강 통로에서 방해가 없이, 즉 구강 통로가 열린 채 조음되는 소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 1) '후'와 관련한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

③은 후음과 관련된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을 보인 것이다.

③ ㄱ.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27]
(오직 아음의 'ㆁ'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과 서로 비슷한 까닭에 운서(韻書)에서도 의모(疑母)(ㆁ)와 유모(喩母)(ㅇ)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역시 '목구멍'에서 모양을 취하고 아음 글자를 만드는 시작으로 삼지 않았다.)

ㄴ.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28]
(ㅇ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쓴 즉, 순경음이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로써 입술을 살짝 다물어서 '후성'이 많기 때문이다.)

ㄷ. 欲之連書爲脣輕, 喉聲多而脣乍合.[29]
(欲(欲母의 ㅇ)을 이어서 쓰면 순경(음)이 되는데, '후성'이 많아서 입술이 살짝만 다물어지네.)

ㄹ.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30]
(또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종성에 쓸 필요가 없고, 중성이 가히 음(음절)을 이룰 수 있다.)

ㅁ. 初聲之ㆆ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31]

---

27) 『정음해례』 제자해, 3ㄴ-4ㄱ.
28) 『정음해례』 제자해, 4ㄴ.
29) 『정음해례』 제자해결구, 11ㄴ.
30) 『정음해례』 종성해, 18ㄱ-ㄴ.

(초성의 'ㅎ'과 'ㅇ'은 서로 유사해서 국어에서 가히 서로 통용할 수 있다.)

ㅂ.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連書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腭.[32]
(반설은 경중 두 개의 소리가 있다. 하지만 운서 자모에는 오직 하나인데, 또 국어에서도 비록 경중을 나누지는 않지만, 모두 소리를 이룰 수 있다. 만약 갖추어 쓰고 싶다면 순경음의 예를 따라서 ㅇ을 ㄹ 아래 이어서 써서 반설경음을 삼는데, 혀가 윗잇몸에 살짝 붙는다.)

③ㄱ은 아음 ''과 후음 'ㅇ'의 유사성을 기술한 부분이다. ③ㄴ은 'ㅇ'을 순음 아래 써서 순경음을 표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③ㄷ은 ③ㄴ에 대한 결구 부분이다. ③ㄹ은 종성해 부분에서 'ㅇ'의 경우 종성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③ㅁ은 초성에서 'ㅎ'과 'ㅇ'이 서로 유사하므로 국어의 경우 서로 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③ㅂ은 반설경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경음의 예를 따라서 반설음을 의미하는 'ㄹ' 아래 'ㅇ'을 이어서 쓰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에 보인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다음 ④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③의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ㄱ. ''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코로 기류가 나가지만 그 소리가 'ㅇ'과 유사하다.

ㄴ. 이러한 음성적 유사성으로 인해 운서(韻書)에서도 의모(疑母)()와 유모(喩母)(ㅇ)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ㄷ. ''은 아음의 불청불탁음임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에서 모양을 본뜨고 아음 제자의 시작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이 후음과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ㄹ. 순음 아래 후음 'ㅇ'을 이어서 씀으로써 순경음을 표시하는 이유는 순경음의 경우 입술이 살짝만 다물어져서 후성이 많기 때문이다.

ㅁ.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종성에 쓰지 않아도 중성만으로 음(음절)을 이룰 수 있다.

31) 『정음해례』 합자해, 22ㄴ.
32) 『정음해례』 합자해, 22ㄴ.

ㅂ. 초성에서 'ㆆ'과 'ㅇ'은 서로 소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두 소리를 통용할 수 있다.
ㅅ. 반설경음은 혀가 윗잇몸에 살짝 붙는 소리인데, 이 소리를 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순경음의 예에 따라서 반설음을 표기하는 'ㄹ' 아래 'ㅇ'을 이어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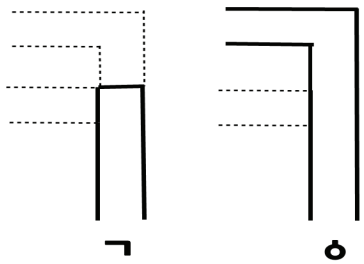
④ㄱ, ④ㄴ, ④ㄷ은 'ㆁ'과 'ㅇ'의 음성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설명이 가능하다. ④ㄹ, ④ㅅ은 순경음과 반설경음의 표시에서 'ㅇ'을 이어서 쓴 이유와 '후성이 많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야 설명이 가능하고, ④ㅁ, ④ㅂ은 후음들이 갖는 음성적 특징을 확인하여야 설명이 가능하다.

### 2) 'ㆁ'과 'ㅇ'의 음성적 유사성

④ㄱ과 ④ㄴ에는 'ㆁ'에 대해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소리가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과 유사하다고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④ㄷ은 'ㆁ'이 아음의 불청불탁음이지만 후음과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후음 계열과 동일하게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연구개음을 왜 '아음' 즉 '어금닛소리'라고 하였을까? 둘째, '아음' 즉 연구개음을 설명하면서 왜 혀뿌리가 '연구개'가 아니라 '목구멍'을 막는다고 하였을까? 셋째, 아음의 불청불탁음인 'ㆁ'의 소리가 후음인 'ㅇ'과 유사하다고 기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ㄱ', 'ㆁ'의 산출 시 성도의 모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ㄱ(연구개 폐쇄음)'과 'ㆁ(연구개 비음)'의 산출 시 성도의 모양을 개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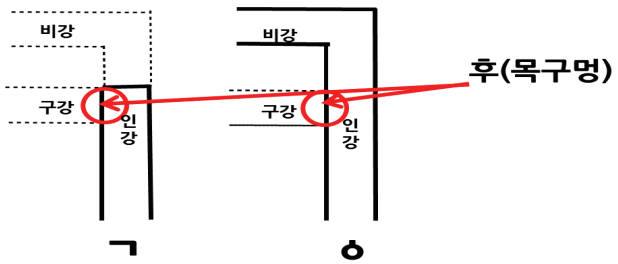


[그림 2] ‘ㄱ’와 ‘ㆁ’의 산출 시 성도의 개략도

[그림 2]의 왼쪽에 보인 것과 같이 연구개 폐쇄음인 ‘ㄱ’은 비강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구강 통로의 거의 끝부분이 막힌 모양으로 산출된다. 반면에 [그림 2]의 오른쪽에 보인 것과 같이 연구개 비음인 ‘ㆁ’은 연구개 폐쇄음인 ‘ㄱ’과 구강 통로 부분은 거의 유사한 상태이지만 코로 가는 길이 뚫린 모양으로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개 폐쇄음과 연구개 비음은 모두 폐쇄가 이루어지는 위치가 입천장을 기준으로는 연구개이지만 이(치아)를 기준으로 보면 어금니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아음’이 모두 구강의 통로가 어금니 부분에서 완전히 막힌 상태로 산출된다는 공통적인 조음적 특징을 가지고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한편, [그림 2]에 보인 ‘아음’의 성도 개략도를 기초로 ‘舌根閉喉(설근폐후)’를 이해하면, ‘후(목구멍)’의 위치가 [그림 3]의 동그라미를 친 부분인 ‘인강’으로 이어지는 구강의 끝부분’, 즉 ‘구강이 인강으로 이어지며 만들어지는 ㄱ자 관의 구강 쪽 끝부분’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3)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은 중국 성운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연구개 다막음 소리의 산출을 기술하는 기준점으로 어금니를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음성학적 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음성학에서 조음 위치는 자음의 범주를 나누는 기준 중 하나로 방해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표시한다. 단, 그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은 그 방해를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아래 조음 기관과 위 조음 기관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아래 조음 기관이 혀인 경우에는 위 조음 기관만으로 명명한다는 원칙을 갖는다.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개정판)』, 한국문화사, 2014, 69-71면.




[그림 3] 『훈민정음』 해례의 '舌根閉喉(설근폐후)' 시 '후(목구멍)'가 의미하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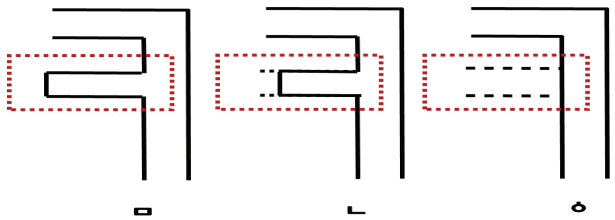
이렇게 '후(목구멍)'의 위치를 '인강으로 이어지는 구강의 끝부분'이라고 본다면, 아음인 'ㄱ'과 'ㆁ'에 대해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고 기술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기술이 된다. 목구멍의 모양을 'ㅇ'과 같이 상형한 것 또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앞서 2.2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후음인 'ㅇ, ㆆ, ㅎ'의 공통점은 구강 통로가 열린 채, 즉 구강 통로에서 방해 없이 조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통적인 조음적 특성을 목구멍이 열린 모양인 'ㅇ'으로 상징화한 의미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후'가 본뜬 것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두'라면, '후'의 기본자를 'ㅇ'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기는 사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후음에 속한 소리들을 만들 때 성대는 활짝 열린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ㅇ'일 때 성대는 진동해야 하므로 닫혔다 열렸다를 매우 빠르게 반복해야 하고, 'ㆆ'일 때 성대는 닫혔다 열려야 하고, 'ㅎ'일 때 성대는 마찰 소음을 만들어 낼 만큼 매우 좁혀진 상태여야 한다. 결국, 후음들을 조음할 때 성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활짝 열린 동그라미 모양을 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음의 불청불탁음인 'ㆁ'의 소리가 후음인 'ㅇ'과 유사하다고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다. 『훈민정음』 해례에는 여타의 비음, 즉 'ㄴ'과 'ㅁ'에 대해 비음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훈민정음』 해례의 저술자가 이 두 소리가 비음이었음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 두 소리에 대해서는 비음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연구개 비음의 경우만 '聲氣出鼻(성기출비)'라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개 비음의 경우에 대해서만 비음임을 언급한 점과 연구개 비음인 'ㆁ'이 후음 'ㅇ'과 음성적으로 유사하다고 기술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 둘의 음성적 유사성, 그리고 그로 인한 제자의 방향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해당 부분을 현대 음성학적으로 해석하면 '아음 'ㆁ'은 조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 음향적 유사성이 존재한다(其聲與ㅇ相似)'와 같다. 즉, 둘은 조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향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아음 'ㆁ'과 후음 'ㅇ'의 음향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순, 치경, 연구개 비음의 산출 시 성도 모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왼쪽부터 양순, 치경, 연구개 비음의 산출 시 성도 모양을 개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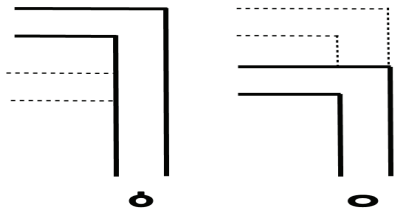


[그림 4] 양순, 치경, 연구개 비음의 산출 시 성도 개략도

양순 비음(순음의 불청불탁)과 치경 비음(설음의 불청불탁)의 경우는 구강 쪽으로 관이 형성된 상태에서 비강으로 이어지는 관이 형성되는 반면에, 연구개 비음(아음의 불청불탁)의 경우는 연구개 폐쇄로 인해 구강 쪽 관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강으로 이어지는 관이 형성된다. 따라서 연구개 비음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관의 모양이 ㄱ자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ㄱ자 모양의 관은 [그림 5]에 보인 것과 같이 그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후음의 불청불탁인 'ㅇ',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소리를 낼 때의 관의 모양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훈민정음』 해례에서 기

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음의 불청불탁과 후음의 불청불탁은 관의 모양이 유사한 만큼, 음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아음의 불청불탁과 후음의 불청불탁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

이러한 음향적인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아음의 불청불탁인 'ㆁ'이 초성으로 쓰인 경우와, 후음의 불청불탁인 'ㅇ'이 초성인 경우(즉, 초성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음성적으로 유사하다는 기술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서(韻書)에서도 의모(疑母)(ㆁ)와 유모(喩母)(ㅇ)가 서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역시 (아음의 불청불탁을 의미하는 글자를) 목구멍에서 모양을 취하고 아음 글자의 시작으로 삼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다.[34]

아음의 불청불탁인 연구개 비음의 이러한 음향적 특성은 연구개 비음이 갖는 분포상의 특이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의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Dryer & Haspelmath(이하 WALS)[35]에 따르면 비음이 자음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조사 대상 567개 언어 중 10개 언어, 즉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36] 하지만 비음들 중에서 유

34) 각 조음 범주에서 가장 세지 않은 소리를 제자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유일하게 어긴 것이 바로 아음의 경우인데, 이에 대해 『훈민정음』 해례는 후음의 불청불탁인 'ㅇ'과의 음성적 유사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어의 경우 'ㆁ'이 어두에 나타나지 않고 비어두 초성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35)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

36) Ian Maddieson, 「Absence of Common Consonants」,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독 연구개 비음은 분포적 특이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된다.[37] WALS는 연구개 비음이 음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많다는 점과 음운 목록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분포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WALS는 'The Velar Nasal(연구개 비음)'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두고 있다.(http://wals.info/chapter/9)

WALS의 해당 장에 따르면 〈표 1〉에 보인 것과 같이 연구개 비음 /ŋ/이 음운 목록에 없는 언어는 조사 대상이 된 469개 언어 가운데 235개 언어, 즉 50.1%나 되었고, 연구개 비음이 음운 목록에 존재하더라도 어두나 초성에서 분포적 제약을 받는 경우는 87개 언어, 즉 18.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 비음 /ŋ/이 음운 목록에 존재하면서 분포상의 제약을 갖지 않는 언어는 조사 대상이 된 469개 언어 가운데 147개 언어, 즉 31.3%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68.7%에 달하는 많은 언어에서 연구개 비음이 음운 목록에 없거나 있다고 해도 초성에 분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1〉 연구개 비음의 분포[38]

| 유형 | 언어 수(%) |
|---|---|
| 연구개 비음 있음, 초(어두 혹은 초성)에 분포 가능 | 147(31.3) |
| 연구개 비음 있음, 초(어두 혹은 초성)에 분포 불가 | 87(18.6) |
| 연구개 비음 없음 | 235(50.1) |
| 계 | 469 |

여타의 비음과는 달리 연구개 비음이 유독 음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두 혹은 초성에 분포 제약이 다수 존재하는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18(2018.12.24 검색).

37) Ian Maddieson, 「The Velar Nasal」,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9(2018.12.24 검색).

38) Ian Maddieson, 「The Velar Nasal」,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9(2018.12.24 검색).

이유를 초성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과의 음향적 유사성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훈민정음』 해례가 기술하고 있는 아음 'ㆁ'과 후음 'ㅇ'이 조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향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 것은 WA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 비음의 분포적인 특이성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喉聲多', '淡而虛', 그리고 'ㅇ'과 'ㆆ'의 음성적 유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후'가 '목구멍'을 의미하며, '목구멍'이란 '인강으로 이어지는 구강의 끝부분', 즉 '구강과 인강에 의해 만들어지는 ㄱ자 관의 구강 쪽 끝부분'이라는 것을 밝혔고 '후음'들의 공통점은 모두 '구강의 통로가 열린 상태로 나는 소리들' 즉, '구강에서 방해가 없이 산출되는 소리들'임을 알게 되었다. 후음에 속한 소리들은 모두 구강 통로에서의 방해 없이 산출된다는 공통점을 갖되, 성대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소리들임을 확인하였다. 즉, 후음들은 구강 통로에서의 방해 없이, 즉 목구멍을 열고 성대를 진동하거나('ㅇ'의 경우), 성대를 막았다가 떼거나('ㆆ'), 성대를 좁혀서 마찰을 만들어 내거나('ㅎ')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다. 이 때문에 후음들은 모두 성도(구강)의 모양이 후행하는 모음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후' 혹은 '후음'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는 순경음과 반설경음에 사용된 'ㅇ'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순경음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喉聲多'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ㅇ'에 대해 '淡而虛'라고 기술한 것과 'ㅇ'이 'ㆆ'과 음성적으로 유사하다고 기술한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의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喉聲多'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喉聲多(후성이 많다)'의 의미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강신항과 박창원 정도가 '喉聲多'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강신항은 '후성'을 '목구멍소리(숨소리)'로 해석하면서 『사성통해』의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 기술되어 있는 순경음에 대한 설명, 즉 'ㅂ음을 낼 때에 입술이 합하는 듯 마는 듯하며, 날숨이 나오면서 ㅸ음이 되는 것을 순경음이라고 한다'를 인용하여 순경음은 양순 마찰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9] 하지만 마찰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 왜 '후성이 많아진다'고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만약 마찰음이 되는 것이 후성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보려면, '치음'에 대해서는 왜 후성이 많다는 기술이 없는지, 그리고 치음을 왜 '설경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별도의 독립된 조음 범주로 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후성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장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은 박창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창원은 '후성이 많다'는 뜻을 '성대의 울림이 많다', '즉 폐쇄음보다 성대의 진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40] 하지만 '후성이 많다'는 것을 성대의 진동이 동반된다는 의미로 푼다면 후음에 속한 'ㆆ'이나 'ㅎ'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후음은 후음인 만큼 후성이 당연히 많아야 한다. 아니, 후성 그 자체이어야 한다. 그런데 후음인 'ㆆ'과 'ㅎ'은 모두 무성음에 속한다. 따라서 후음인 'ㆆ'과 'ㅎ'에 대해 후성이 없다고 설명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후성이 많다'는 것을 성대의 진동이 동반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후음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두 선행연구는 모두 반설경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갖게 된다. 강신항의 주장처럼 '후성'이 '마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반설경음(ㅱ)도 마찰음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박창원의 주장처럼 '후성'이 '성대 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반설음(ㄹ)을 무성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신항은 반설음(반설중음)을 설측음으로, 반설경음을 탄설음[41]으로 재구하고 있다. 사실, 어떤 연구자도 반설음을 무성음으로

39) 강신항, 앞의 책, 138면은 순경음을 양순 유성 마찰음인 [β]로 재구하고 있다. 이렇게 재구한 이유를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의 기술과 ㅸ의 용례를 통해, 즉 분포를 통해 재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0) 박창원, 앞의 책, 69면.

재구하거나 반설경음을 마찰음으로 재구하지 않았다.

만약 본고의 주장과 같이 '후음'을 '목구멍이 열린 채(즉, 구강 통로가 열린 채, 혹은 구강에서 방해 없이) 조음되는 소리의 조음 범주'라고 보고, '후성'을 '목구멍소리의 성질', 즉 '구강 통로가 열린 채 조음되는 성질 혹은 구강에서 방해가 없이 산출되는 성질'로 본다면 '후성이 많다'는 뜻을 구강의 완전 폐쇄가 매우 짧게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왜 '입술을 살짝 다무는 것(脣乍合)'과 '혀가 윗잇몸에 살짝 붙는 것(舌乍附上腭)'이 후성이 많은 것과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순음과 반설음을 나타내는 글자 아래 후음을 나타내는 'ㅇ'을 이어서 쓰는 방식으로 순경음과 반설경음을 표시하는 『훈민정음』 해례의 방식은, 'ㅇ'이 갖는 음성적 특징이 순음과 반설음에 더해져 순경음과 반설경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문자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후'에 대한 해석은 후음이 갖는 음성적 특징을 '淡而虛'라고 설명한 것과 'ㅇ'과 'ㆆ'이 초성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하다는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한다. 'ㅇ'은 구강 통로에서의 방해 없이 후행 모음을 위한 성대 진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ㅇ'이 사실은 자음의 특성을 전혀 갖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ㅇ'의 이러한 음성적 특징을 '淡而虛'라고 기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ㅇ'과 'ㆆ'의 음성적 차이는 성문 폐쇄의 존재 여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소리가 음성적으로 유사하다는 기술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음절의 초성에 성문 폐쇄음이 분포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여 초성의 두 소리가 음성적으로 유사해서 한국어에서 서로 통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 사실 강신항, 앞의 책, 165면에서는 탄설음이라는 용어 대신에 '설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음성 기호도 [ɾ] 대신에 [ɽ]을 사용하고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후'를 '후두' 혹은 '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서는 아음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인 '舌根閉喉(설근폐후)'조차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훈민정음』해례의 '후'와 관련한 대부분의 기술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던『훈민정음』해례의 '후(喉)'에 대한 해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에, '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본 연구는『훈민정음』해례의 자음자 기술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훈민정음』해례의 자음자 배열 순서가 가진 의미를 검토함으로써『훈민정음』해례의 기술이 매우 체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훈민정음』해례의 저자들은 문자와 소리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은 물론,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 대상이 되는 자음자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훈민정음』해례에서 체계화하고 있는 조음 범주인 '아, 설, 순, 치, 후'의 범주 구분 기준과 범주의 나열 순서가 갖는 음성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 설, 순'은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면서 나는 소리들, 즉 다막음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치'와 '후'는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나는 소리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면서 나는 소리들인 '아, 설, 순'은 그 폐쇄가 입술에서 먼 쪽, 혹은 '목구멍'에서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지 않는 범주 중 하나인 '치'는 조음 기관인 윗니가 마찰의 장애물로서 조음에 관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치경부에서 산출되는 파찰음과 마찰음이 이 조음 범주에 속하는 이유다. 그리고 '후'는 공통적으로 구강 통로가 열린 채(즉 구강 통로에서 방해가 없이) 조음되는 소리들의 조음 범주이다. 후음에 속한 소리들은 모두 구강 통로에서의 방해 없이 산출되는 특성을

공통점으로 갖기 때문에 성도(구강)의 모양이 후행하는 모음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후음에 속한 소리들은 조음 시 성대의 상태에서만 차이점을 보인다. 'ㅇ'은 고유한 음가 없이 후행 모음을 위해 성대가 진동하고, 'ㆆ'은 성대를 막았다가 떼고, 'ㅎ'은 성대를 좁혀서 마찰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훈민정음』 해례의 '후'와 관련한 기술 내용과 이에 대한 음성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후'는 '후두' 혹은 '성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구멍'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목구멍이란 '인강으로 이어지는 구강의 끝부분', 즉 '구강과 인강에 의해 만들어지는 ㄱ자 관의 구강 쪽 끝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간 이해하지 못했던 『훈민정음』 해례의 많은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첫째, 아음의 기술에서 '舌根閉喉(설근폐후)'라고 한 것은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잘못된 기술이 아니라 정확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음의 불청불탁인 'ㆁ'과 후음의 불청불탁인 'ㅇ'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자 시에 'ㆁ'을 특별하게 취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ㆁ'과 'ㅇ'이 조음적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음향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착한 『훈민정음』 해례의 기술은 현대 음성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연구개 비음의 분포적 특이성(즉 연구개 비음이 음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많고, 존재하는 경우에도 분포상의 제약이 있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셋째, '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순경음과 반설경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ㅇ'을 연서한 이유와 이에 대한 기술에서 보인 '喉聲多(후성이 많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ㅇ'을 '淡而虛'라고 기술한 것과 'ㅇ'과 'ㆆ'이 초성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하다고 기술한 의미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참고문헌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2003.
국립한글박물관,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 국립한글박물관, 2017.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2017.
박창원,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2005.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개정판)』, 한국문화사, 2014.
이기문,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1972.
_____, 『(신정판) 국어사개설』, 서울: 태학사, 1998.
이현희 외, 『훈민정음의 한 이해』, 역락, 2014.
임용기, 「이른바 이체자 'ㆁ, ㄹ, ㅿ'의 제자방법에 대한 반성」, 『새국어생활』 제9권 4호, 국립국어원, 1999, 161-167면.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
Ian Maddieson, 「Voicing in Plosives and Fricatives」,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4(2018.12.24 검색).
_____, 「The Velar Nasal」,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9(2018.12.24 검색).
_____, 「Absence of Common Consonants」,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2013, http://wals.info/chapter/18(2018.12.24 검색).

【Abstract】

## Revisiting the meaning of '喉 (hu)' in the *Hunminjeongeum* Haerye

Shin, Ji-Young*

This paper re-visits the meaning of 喉 (hu) in the *Hunminjeongeum* Haerye. It aims to sho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hu sound in the current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is sound as well as the alternative view on 喉 (hu). In doing so, this paper develops an in-depth analysis on 'a' sound (molar), 'seol' sound (lingual), 'sun' sound (labial), 'chi' sound (incisor) and 'hu' sound (described as laryngeal sounds thus far). We shows that hu sound is in fact not made in the larynx nor the glottis but is articulated at the edge of oral cavity in the ㄱ-shaped passage created by the oral and glottal cavities. This representation of hu sound helps our understanding of the *Hunminjeongeum* Haerye. Firstly,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sel-geun-pye-hwu' (舌根閉喉), which refers to the shape of the root of the tongue blocking the pharynx. Secondly, we can demonstrate the phonetic similarity between the old iung (ㅇ) and the iung (ㅇ). Thirdly, we can also understand why iung (ㅇ) is used underneath the labial as in ㅱ and why it is mentioned that there are many hu sound in the *Hunminjeongeum*. Finally, we can explain the phonetic similarities between ㅇ and ㆆ.

Keywords: *Hunminjeongeum* Haerye, Hu (喉), 'a-seol-sun-chi-hu' (牙舌脣齒喉), 'sel-geun-pye-hwu' (舌根閉喉), 'hu-seong-da'(喉聲多).

접수일: 2018.12.24.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